

# 모던한 건물 속 역사의 향취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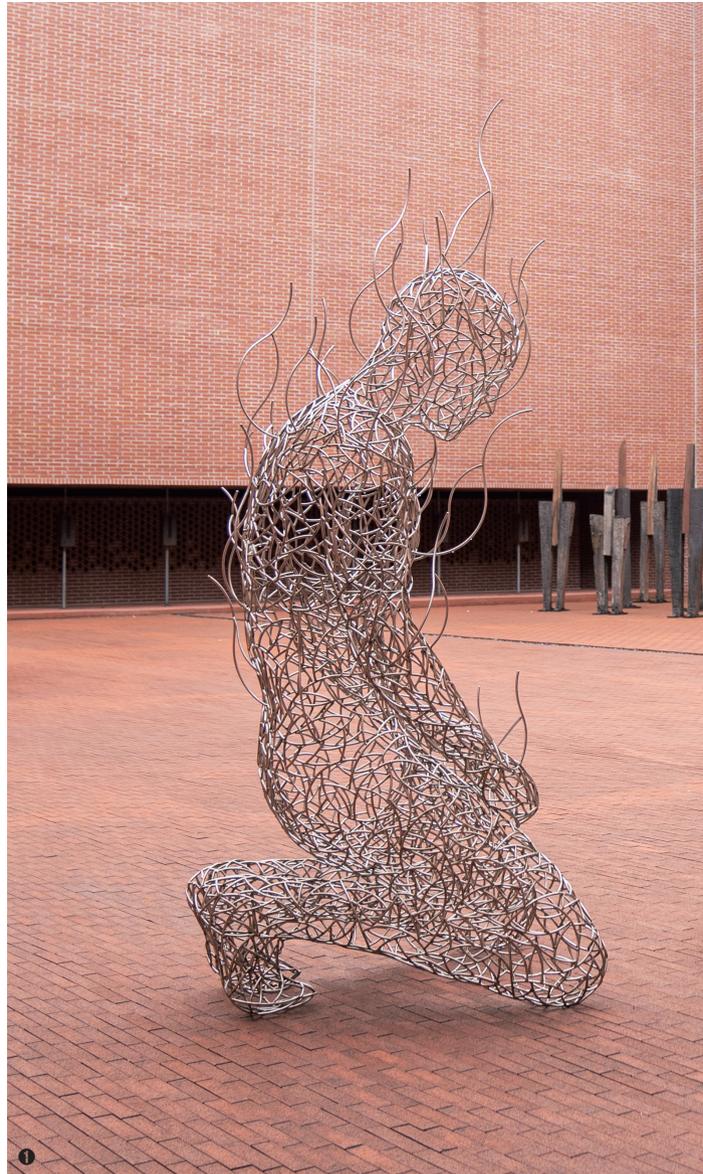
글 천성윤 사진 조재은

### 도심의 안식처

서울 도심 한가운데 천주교 순교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 오래 전부터 '서소문 밖 네거리'로 불리어 온 이곳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있다. 이곳 부지는 과거 조선시대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공식 처형지였다. 그때 처형된 천주교 개척자들이 많아 이곳이 성지로 불린다.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은 영혼을 치유하듯 천주교 조형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2019년 개관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원래 1996년 지어져 활용된 공영주차장을 재편해 만든 곳이다. 지상이 아닌 지하에 공간을 꾸며 만들었기 때문에 쉬이 눈에 띄지 않는다. 외부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박물관은 그 지하에 위치해 있다. 주변의 경관은 도심 그 자체. 건물 숲이 둘러쌓인 가운데 순교의 성지가 존재함으로써 이 부지의 진중한 역사성이 느껴진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다양한 미술 조각품, 역사박물관 같지 않은 모던한 정취, 그리고 경건함. 이곳은 숨 가쁜 도시의 안식처와 같다.

- ❶ 김정희 작가의 'Space 2022-IDEA'
- ❷ 역사박물관 내에는 도서관도 마련돼 있다.
- ❸ 제1상설전시관에는 조선 후기 사상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 현대미술관 같은 역사박물관

붉은색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세련되고 모던하다는 인상을 준다. 마치 현대미술관을 보듯, 예술성이 가득하고 딱딱하지 않은 역사박물관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파격적일 만큼 현대예술에 개방적이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현대미술품들이 자리하고 있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인공윤리'라는 주제로 미래지향적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12명의 작가들이 저마다 SF적 상상력을 동원한 조각, 회화, 설치미술품들을 출품했고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하는 현대문명의 혼돈을 조망하고 있었다(2/12 종료). 상설전시품들은 주로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가치 있는 유산들로 구성됐다. 세계인권선언 원서, 안중근 의사의 글 등 아주 흥미로운 역사 사료들이 많다. 상설전시관은 조선 후기 사상사의 흐름을 다룬 1전시실과 서소문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이야기하는 2전시실로 나뉜다. 또한 박물관 내부에 성(聖) 정하상 바오로 기념경당이 있어 순례자 미사도 진행한다.

## 웅장함과 모던한 건물에 반하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공간 자체가 매우 웅장한 느낌을 준다. 거대하며, 광활하다. 드높은 천장과 대강당 같은 거대 스케일의 전시실을 보며 여백의 미학, 공간감, 그것에서 오는 압도감을 느낀다. 특히 가장 거대한 전시관인 콘솔레이션 홀의 광경은 압권이다. '콘솔레이션'이란 위로, 위안을 뜻하며 과거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한 모든 이들과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는 곳이다. 이 공간엔 천주교 박해 시기에 순교한 성인 다섯 분의 유해를 모신 곳이 자연광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더욱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철과 벽돌에 둘러 쌓인 공간이지만 여기에 담긴 위로는 참으로 아늑하고 따스하다. 이 아름다운 공간의 향연은 도시의 보물이자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성지다. 총정로역을 지나게 된다면, 잠시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보자. 그리고 마음이 천천히 빗질될 듯 경건함 속에 정갈해지는 느낌을 받아보자. 🙏



- ① 서소문 지역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제2상설전시관
- ②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의 무덤'을 표현한 최지만 작가의 작품

### INFO

서울시 중구 칠패로 5  
월요일 휴무, 화~일 09:30-17:30

